슈퍼 그뤠잇, 스위스 영수증.

짠돌이도 스위스에서는 5 성급 서비스 누릴 수 있어

스위스 트래블 패스 한 장이면 누릴 수 있는 혜택 가득
알프스 명봉 세 곳, 무료로 오를 수 있어
박물관도 공짜
프리미엄급 파노라마 기차는 물론, 캄블리 기차와 치즈 기차, 초컬릿 기차도
무료 자전거타고 무료 빙하수 마시고
진수성찬 피크닉은 5 성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아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

물가가 비싸기로 알려진 스위스. 여행자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김생민도 울고 갈만한 짠돌이들을 위한 알뜰 스위스 여행법을 소개한다. 그까짓 물가 때문에 스위스가 품고 있는 태초의 자연과 그 속에서 발전한 그들만의 문화를 체험해볼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테니 말이다.

'슈퍼 그뤠잇!'을 외치며 보람차게 스위스를 여행할 수 있는 알짜팁을 소개한다.

1. 스위스 갈 때는 무조건 스위스 트래블 패스(Swiss Travel Pass)를 구입하라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쉽게 말하자면, 스위스 대중교통 '자유 이용권'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와 연계해서 스위스를 여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잘 알려진 '유레일 패스'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스위스 여행 기간 동안만은 반드시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별개로 구입하도록 하자. 다음과 같은 놀라운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알고보면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선수들 사이에서 그리 놀랄 정보는 아니다. 알뜰살뜰한 한민족의 나라, 대한민국은 2017 년 기준, 전 세계에서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가장 많이 구매한 나라로 기록됐으니 말이다.

1) 기차와 유람선은 물론이고, 도심지 대중교통도 무료다.
스위스 도심 내 트램이나 버스의 기본요금만 해도 평균 CHF 4.20 으로, 편도에 4,500 원 이상이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공짜다.

2) 리기(Rigi), 슈탄저호른(Stanserhorn), 쉴트호른(Schilthorn) 산이 무료다.
루체른(Luzern) 호수의 기막힌 풍경을 바라보며 들꽃 가득핀 초록 들판을 하이킹하기 좋은 리기, 세계 최초의 컨버터블 케이블카이자 더블데커 케이블카인 카브리오(CabriO)로 루체른 호수 상공을 오를 수 있는 슈탄저호른, 007 여왕 폐하 대작전의 로케이션으로 유명하며 아이거(Eiger), 뮌히(Mönch), 융프라우(Jungfrau) 봉우리를 감상할 수 있는 쉴트호른산을 무료로 오를 수 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없으면 리기는 CHF 36, 슈탄저호른은 CHF 74, 쉴트호른은 CHF 105 을 지불해야 한다.

3) 대부분의 산악 교통 편은 50% 할인이다.
스위스까지 가서, 알프스 산 봉우리 하나쯤 올라야 하지 않겠나.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시,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필라투스(Pilatus), 티틀리스(Titlis), 슈토오스(Stoos)를 비롯한 많은 산악 교통을 50% 할인된 금액이 이용할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4) 500 개 이상의 박물관이 공짜다.
'뭉치면 뜬다'에서 방문했던 취리히(Zurich)의 피파 월드 풋볼(FIFA World Football) 박물관을 비롯해 스위스 국립 박물관, 베른(Bern)과 생갈렌(St. Gallen)의 시립 미술관, 파울 클레 센터(Zentrum Paul Klee), 루체른(Luzern)의 로젠가르트 미술관(Sammlung Rosengart), 체르마트(Zermatt)의 마터호른 박물관(Matterhorn Museum) 등 500 개 이상의 박물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어떤 박물관은 무료 입장은 아니어도 50% 할인이나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스위스에서 박물관에 간다면 일단 스위스 트래블 패스부터 제시하도록 한다.

5) 프리미엄급 파노라마 여정도 무료다.
2017 년 첫선을 보인 루체른 호수의 럭셔리한 유람선, '엠에스 디아망(MS Diamant)', 빌헬름텔 익스프레스(Wilhelm Tell)의 유람선같은 특별한 유람선도 무료다. 편도 요금 CHF 269 나 하는 빙하특급(Glacier Express)를 비롯해, 베르니나 익스프레스(Bernina Express), 골든패스(GoldenPass), 고타드 파노라마 익스프레스(Gotthard Panorama Express)같은 프리미엄급 파노라마 기차도 예약비만 내면 무료다. 호숫가와 이탈리어권의 좁은 마을 골목을 달리는 버스 여정으로 유명한 팜 익스프레스(Palm Express)도 무료다.

6)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 기차도 무료 혹은 대폭 할인이다.
스위스의 전통 과자를 생산하는 캄블리(Kambly) 공장을 방문해 각종 비스켓을 맛볼 수 있는 루체른(Luzern)-베른(Bern) 구간 캄블리 왕복 여정이 무료고, 몽트뢰(Montreux)에서 샤또데(Chateau d'Oex)로 향해 치즈 공방을 방문해 맛있는 퐁뒤를 먹을 수 있는 치즈 기차, 몽트뢰에서 벨에포끄식 빈티지 기차를 타고 브록(Broc)에 있는 초컬릿 공장을 방문하는 초컬릿 기차(Chocolate Train)는 약간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전체 체험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7) 자녀들이 만 17 세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스위스를 여행하라.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소지한 부모 최소 1 인과 동행하는 만 16 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스위스 트래블 패스의 혜택을 무료로 모두 누릴 수 있다. 단, 어린이가 만 6-16 세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스위스 패밀리 카드(Swiss Family Card)를 소지해야 한다. 스위스 기차역이나 스위스 트래블 패스 구입처에서 무료로 발행해 준다.

8) 젊은이라면 더 저렴하다.
만 26 세 미만의 젊은이의 경우, 유스(Youth) 할인으로 15% 저렴하게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구입할 수 있다.

2. 무료 자전거를 이용하라.
베른(Bern)과 취리히(Zürich)를 찾는다면 무료 자전거를 이용해 도심을 둘러보기 좋다.
취리히에서는 '쥐리 롤트(Züri rollt)'라는 무료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를 한 대 빌려, 두 바퀴로 취리히 구시가지 곳곳을 둘러보기 좋다. 도시형 자전거나 이바이크, 어린이 자전거 등 다양한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데, 여권과 CHF 20 의 보증금을 대여소에 맡기면 된다.
베른에서는 무료로 자전거, 이바이크, 스쿠터, 스케이트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베른 롤트(Bern rolt)'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여권과 보증금 CHF 20 을 맡기면 원하는 것을 무료로 4 시간 동안 대여할 수 있다. 추가 되는 시간을 이용할 경우 시간당 CHF 1 를 지불해야 한다. 총 5 일까지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베른의 밀크갸슬리(Milchgässli), 히르셴그라벤(Hirschengraben),

초이그하우스가쎄(Zeughausgasse)에 베른 롤트 대여소가 마련되어 있다. 단, 5 월부터 10 월까지만 운영한다.

3. 무거운 짐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라.
여행 중 이동해야 하는 날이면 무거운 짐 때문에 고생이다. 특히 일정 중, 짐을 들고 중간 목적지를 여행해야 한다면 코인 락커 비용도 든다. 락커 사이즈와 이용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CHF 5 이상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수하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성비가 훨씬 좋다. 주요 기차역에서 오전 9 시 이전에 짐을 부치면 같은 날 저녁 6 시 이후에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기차역 내 수하물 서비스 코너에서 "익스프레스 러기지(Express Luggage)"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짐 하나에 CHF 12 다. 단, 기차역마다 수하물 서비스 코너 마감 시간이 다르므로 짐 찾는 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4. 물통 하나만 사면 물은 공짜다.
스위스를 여행할 때는 물통을 하나 들고 다니면 좋다. 스위스에서는 물을 사먹을 필요가 없다. 마을마다, 도심 광장마다 있는 분수대의 물을 받아 마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수돗물은 아주 깨끗하고 100% 천연 생수이기 때문이다. 수돗물에 사용된 물의 40%는 샘과 지하수에서, 20%는 호수에서 끌어온 물이다. 엄격한 수자원 보호정책 덕분에 하천과 지하수가 매우 깨끗해서 스위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수돗물을 마셔도 무방하다. 수돗물은 사실 진정한 친환경 식수이다. 병에 담겨 있지도 않고, 장거리 운송되지도 않은 물이기 때문이다. 병입된 물을 사고 싶다면 가판대보다 수퍼마켓의 물이 절대적으로 저렴하다.

5. 피크닉으로 진수성찬을 즐기라.
스위스의 레스토랑에서의 정찬은 비용이 쏠쏠찮다. 그렇다고 스위스에서의 정찬을 포기할 수는 없다. 스위스의 대표 마트인 코옵(Coop)과 미그로(Migros)에는 각종 치즈와 소시지류를 포함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샐러드나 샌드위치, 과일컵 등을 판매한다. 신선 코너에서 취향에 맞게 골라 풍경 좋은 구시가 광장 한켠이나, 언덕 위, 알프스 산정 호숫가에 앉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전망이 있는 피크닉은 5 성급 호텔에서의 정찬이 부럽지 않다.

6.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라.
스위스에서 데이터 요금을 별도로 지불할 생각이라면 '스튜핏' 소리 듣기 십상이다. 스위스 전역의 80 여개 기차역에서는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기차역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무료 와이파이로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찾아볼 수 있다. 단, 한 시간 동안만 무료다. 기차역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취리히(Zurich) 공항은 물론, 체르마트(Zermatt)의 스키장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